



덕주사-병불련 의료봉사 현장을 찾아서

병고치고 잔치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덕주사 주지 원경 스님

“아유, 고마워서 어떤데...”
 “아닙니다, 어르신.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르신과 봉사자가 서로 손을 맞잡은 채 연신 고맙다는 말을 주고받는다. 서로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이들을 행복하게 만든 일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봄기운 속에 봄비가 촉촉이 오던 3월 23일, 충북 제천시 덕산면 덕산복지회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 임시 진료소가 차려졌다. 임시라고는 하지만 진료소는 양방·한방·여성 의료

서비스와 협압·혈액·당 검사를 비롯한 검진절차는 물론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의약 및 안경 배부까지 가능하도록 알차게 꾸려졌다. 최고라 손꼽히는 의료인들의 봉사모임인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 이하 병불련) 소속 회원 30여명이 ‘춘계 연합 의료봉사’ 타이틀을 달고 제천 덕주사주지 원경(가주)이 주관한 ‘행복 속으로 가는 의료봉사’에 참여해 힘을 보탬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조계사불교대학 기본교육이수자 모임 약사보리회와 기업체 고려아카데미, 덕주사신도회까지 합세했다.
 이날 봉사는 10시부터 시작됐지만 지역 어르신들은 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1시간가량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그만큼 어르신들에게 의료봉사는 절실히 기다리던 ‘단비’와 같았던 것이다.
 “어르신 어디가 편찮으세요?”
 “요즘 팔다리가 쭉서 잠을 못자겠어요. 나이 먹으니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려.”
 “혹시 허가 마르거나 하는 건 없으세요? 어디, 딱 한 번 짚어봅시다, 어르신.”
 머느리와 단 둘이 살고 있다는 김순애(88) 할머니

는 관절염으로 인해 고령 받고 있었다. 너무 멀어 병원 가기가 힘들다는 김 할머니는 “이런 의료봉사가 자주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선생님들께 자주 좀 오시라고 말씀드려달라”고 넉넉히 부탁하기도 했다.
 인근 마을에서 문구점을 하고 있는 정이(92) 할머니는 의료봉사 소식을 듣고는 가게 문도 닫은 채 지팡이를 짚고 진료소를 찾았다. 또한 김종길(70) 할아버지는 “백내장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퇴원하고는 병원에 가보질 못했다”며 진료소 덕분에 한시를 났다는 표정을 지어보였다.
 한편 진료소 한쪽에서는 가위 소리가 들려왔다. 서울 압구정 ‘유병곤 헤어살롱’ 유병곤 원장이 아들 성재(11)와 함께 봉사현장을 찾아 할머니들의 머리를 손질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 원장은 “영업 하루 포기하고 왔다”며 씩 웃고는 할머니들의 머리칼락을 세심하게 손질했다. 아들 성재도 아씨의 활동을 지켜 보며 뿌듯해 했다.
 시골에서 행사가 열리면 다 그렇듯 의료봉사도 꼭 마을잔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덕주사신도회에서

떡·과일·차 등 간소한 먹거리와 제천지역 나물 향기를 담백 머금은 질박한 비빔밥을 준비, 이곳을 찾은 어르신들의 입맛을 들였다. 또한 국악인들도 함께 이 자리를 찾아 우리 가락의 흥겨움이 담긴 ‘아리랑’ 등을 어르신들에게 선사했다.
 요즘은 시골 마을이라도 살기 불편하지 않다고들 한다. 도시서 살던 사람들이 ‘웰빙’을 이유로 시골살이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시골’은 아무리 도로가 닦이고 건물이 바뀌어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어르신들의 손박한 미소가 바뀌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어르신들의 갈라진 손끝조차 아무런 치료도 없이 있다는 사실은 영 마음이 쓰인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구병수 원장이 “어르신들을 진맥해 보니 의외로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 놀랐다”고 걱정하며 “토요일까지 세미나 등으로 바빠 의료봉사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르신들의 상태를 보니 이곳에 오길 매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할 정도다.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덕주사 주지 원경 스님은 “10개월간 주지 소임을 맡아 살며보니 도농간 의료

격차도 있지만 시골 분들이 병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는 행사를 열면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생각하신다”며 이것이 바로 시골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포교라고 강조했다.
 ‘행복 속으로 가는 의료봉사’는 앞으로도 제천시 11개 면을 순회하며 3개월마다 한 번씩 열릴 예정이다. 병불련도 이 의료봉사에 힘을 합칠 뜻을 전달했다. 병불련 류재환 회장이 “불자로서 불교 정신에 입각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병불련 회원 모두가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스님과 의논해 정기적으로 이 곳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한 것이다.
 아마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얼굴이 병불련 회원들에게는 뿌듯함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날 의료봉사 현장을 통해 사는 곳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돼 서로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천/글=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사진=박재원 기자 jwpark@buddhapia.com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병풍
(관세음보살 부분품)
(자장보살부분장)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42) 42 × 50cm
(44) 42 × 65cm

오미반
메추리자
80 × 20cm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 × 10mm × 12mm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 × 16 × 16cm 125,000원
→ 할인가 125,000원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승영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들 온열복대

원액외선 ‘열침’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들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들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차료기 **금강약들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들 유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작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액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 결림 고열암,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온열복대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LIG 배선보검 가검
 전자파 장애실험,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리니에 차가운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썩음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됨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홍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속됨(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액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홍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 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의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안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예영 / 일일금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복상불소영가량장천식식사용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